



특집 _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획 _ 70개국 차세대 2천600명, 뿌리 찾으러 모국 온다
 이달의 재외동포 _ 모국 발전 앞장 학도병 출신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이슈 앤 화제 _ OK-BIZ,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동포 네트워크(OK-BIZ)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 돋보기 _ “소외된 사할린 동포,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2025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재외동포

한류는 산업인가, 문화인가, 혹은 감성인가. K팝과 드라마, K-푸드와 K-뷰티를 넘어 K-컬처와 K-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 오늘의 한류에는 국가 브랜드 전략이나 테크놀로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창·제작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K-콘텐츠가 있고, 그 저변에는 한류의 자발적 전도자들 바로 '글로벌 한인 공동체'가 있다.

필자가 3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브라질 상파울루만 봐도 그렇다. 봉헤치로 한인 커뮤니티는 2010년에 시 당국으로부터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우리(Uri)와 같은 조형물에 이어 봉헤치로 '프라치스 코레이아' 거리 명명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 왔다. 한류 확산의 이면에는 한인타운발전위원회 등의 연대와 저력이 있다.

봉헤치로에는 한국 식당들이 성업 중이다. 한인과 주재원들이 주고객이던 이곳에 브라질 현지인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한식당을 찾은 현지인 중 87.9%가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한류는 K-푸드도 확장되었고, 한국어 학습으로도 이어졌다. 2013년에는 상파울루 주립대(USP)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설치 등의 흐름은 공관과 한인사회의 노력이 이룬 결과다.

동포 청소년 대상으로 개최되던 '드림 콘서트'는 브라질 청소년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적불문 모두가 참가하는 'K팝 커버댄스 콘테스트'로 개방되었다.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현지의 문화업체가 개최한 'K팝 인베이전' 등의 행사는 브라질 한류의 도도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K팝은 브라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매력있는 '포래문화'로 자리 잡았고, 동포 청소년들은 'K-컬처 전도사'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BTS는 브라질 공연을 4차례나 가졌다.

실제로 재외동포의 역할은 소중하다.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원장
(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재외동포는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모국-거주국 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정치적 신장을 바탕으로 한민족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대변한다. 경제분야는 어떤가. 재외동포(한상)의 경제활동은 국가의 경제영토 확대 효과를 거둔다. 국내 투자, 송금, 일자리 창출 기여, 대한민국 제품 수출의 첨병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문화 분야를 보면 재외동포는 모국-거주국 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한류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세계 각지 한인사회의 문화행사는 대한민국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브라질 한인회의 '한국문화의 날'이 대표적이다. 또한 자녀 세

대에 있어 한류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의 한국'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동포사회가 한류의 확장성과 현지화를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상파울루에는 한류 붐에 힘입어 K-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동포가 있는가 하면 K-푸드를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아예 한식당을 개업한 사례도 있다.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들도 허다하다. 이처럼 한류는 재외동포와 함께 숨 쉬며 뻗어나가고 있다. 국경 밖의 존재가 아니라, 국경 너머의 문화 동반자인 셈이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공감과 연대에서 비롯된다. 그 물길은 지금도 쉬임 없이 흐르고 있다.

앞으로 한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재외공관을 필두로 코트라,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이 재외동포의 구심체인 한인회 등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류는 더 이상 일방향이 아니라, 현지와의 '함께 만드는 문화'여야 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교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창**





- 02 창을 열며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재외동포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원장(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 04 특집 이재명 대통령 취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달라질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하겠다”
재외동포들 “이중국적 문제 등 현안 관심가져 주길”
- 10 기획 70개국 차세대 2천600명, 뿌리 찾으러 모국 온다
- 12 이달의 재외동포 모국 발전 앞장 학도병 출신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 14 이슈 앤 화제 OK-BIZ,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동포 네트워크(OK-BIZ)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16 정책 돋보기 “소외된 사할린 동포,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 18 인터뷰 김점배 글로벌상상드림 이사장 “차세대 한민족 인재 키우는 데 혼신 다할 것”
- 20 초대석 “차세대 육성 적기...제2, 제3의 앤디 김 계속 나올 것”
- 22 뉴스속으로 입양인 치유의 공간, 파주 ‘엄마품동산’ 8년 만에 개장
- 23 글로벌 코리안 “군인 아닌 아버지로서 가족과 첫 모국 방문 기뻐요”
- 24 OKA 뉴스 동포청, 첫 홍보대사에 ‘큰별쌤’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 위촉 외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5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30일까지 코리안넷 접수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취임 연설서 국정운영 밝혀 “정의로운 통합정부 ·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던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국정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민생회복 · 경제살리기부터 시작”

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략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계엄사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의 모든 영역에서 영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정운영의 무게를 경제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분열 끝내고 시장주의 정부될 것”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의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

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장**

달라질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하겠다”

미국 · OECD 주요 국가들처럼 우편 ·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도 논의



이상덕 청장이 5월 16일 유럽한글학교협회 교사연수에 참석, 유럽 전역의 18개국 64개 한글학교에서 참가한 현장 교사 150여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재외동포정책은 그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미래 세대 육성, 그리고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며, 동포사회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 보장, 우편투표제 도입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재외국민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를 하려면

먼 거리의 재외공관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낮고, 동포사회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편투표, 팩스, 이메일, 웹페이지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한국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우편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선 공약집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그는 임기 내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등 동포사회 단체들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내고, 각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그동안은 정치적 합의 부족과 우편투표 신뢰성 논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내걸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동포사회는 구체적 논의와 입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5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차세대 동포 육성과 동포사회 연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은 단순히 투표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확대 및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를 또 다른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 현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동포 장학금, 국내 초청 연수,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사회의 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동포가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동포사회와의 연대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동포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동포사회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시각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동포사회가 한국의 미래와 성장에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안전과 권익 보호, 행정·영사 서비스 혁신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 보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체계의 선진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의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지 경찰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비상 연락망 체계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동포사회에서 매우 높은 요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행정·영사 서비스 혁신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온라인 영사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권 발급 및 각종 행정 민원의 절차를 간소화해,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민원 신청, 재외공관 내 민원 창구 확대, 서비스 품질 평가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이는 동포사회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변화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와 우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은 실질적 권리 보장, 차세대 동포 육성, 안전 및 권익 보호, 행정 서비스 혁신 등 전방위적인 지원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동포사회는 우편투표제 도입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 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약 197만 명에 달하지만,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실제 투표 참여율이 10% 남짓에 그쳤다. 우편투표제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동포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위한 정책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참정권 실질 보장, 차세대 동포 육성, 안전 및 권익 보호, 행정 서비스 혁신 등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동포사회와의 상생과 연대 강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동포사회의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

재외동포들 “이중국적 문제 등 현안 관심가져 주길”

“동포들의 목소리 경청, 정책 파트너로 대해 줬으면”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주 동포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새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관세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미주에서 가장 많은 교민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의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탄핵과 그동안의 정치적 공백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미국에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한국에 리더십이 없어서 그간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측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관세 문제도 협상이 늦어져 한국에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걸로 아는데,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약속을 많이 해서 기반을 잘 닦아놓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 관세 해결해 주길

이명석 뉴욕한인회장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한인 사회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그동안 해외 동포들이 본국에 많은 송금을 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기여와 달리 최근 들어 재미 동포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미주 동포의 권익과 이중국적 문제 등 현안에 관심을



이재명 대통령(뒷줄 왼쪽서 5번째)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수화 메릴랜드 한인회장은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 “모국의 상황이 잘 해결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인근에서 요식 사업을 하는 최경신(57) 씨도 특히 “미국의 관세로 인해 한국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좋은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한국의 정치 혼란 때문에 교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안정과 통합을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미주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동포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달라는 당부도 잇따랐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퀘벡거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의 동포 집단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 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며 “동포들을 정치권력의 파트너로 여겨서는 안 되며 한국의 정치가 분열됐더라도 동포들은 미국에서 결집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도 “한인들이 비록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모국이 더 잘 되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의 마음이 대통령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국민의 목소리와 각 현장의 목소리, 우리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5년 후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주부 한인연합회의 스티브 리 회장도 “이민 역사가 오래되면서 지금 미국의 동포사회는 2세대에 더 가깝고 미국 생활에 더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 더 도움이 되고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리 회장은 “다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면서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한 유대인은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미국의 유대인이 되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미국의 한국인이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테고 그게 궁극적으로 동포사회와 본국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아바나의 정호현 세종학당장은 “2024년 한국과 쿠바가 수교하면서, 수도 아바나에 처음으로 세종학당이 개원했다”며 “우리나라가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외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더 활기를 띠고 자연스럽

게 국격이 오른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어 교육 현장과 학습자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동포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동포사회에서는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우편투표제 도입 등으로 재외투표 방식을 개선하면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재외국민 투표 방식(공관 방문 투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재외국민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김 회장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외동포의 당연한 권리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즉 투표권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편투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70개국 차세대 2천600명, 뿌리 찾으러 모국 온다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17일 시작

전 세계 70여개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 2천 600여 명이 모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1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 연수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주관한다. 이날 인천 영종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연수 개회식에는 26개국 차세대동포 240여 명이 참가했다. 오는 8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연수에는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2천600명 이상의 차세대동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8월 17일까지 1주일씩 9차례 연수 진행

재외동포 청소년(만15~18세)과 청년(만18~25세)을 대상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열리는 연수는 회차별 270

여 명이 참여해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다.

특히 올해 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체성(Koreanity) ▲세계성(Globality) ▲연결성(Connectivity)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한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체성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을 하자는 취지이고, 세계성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유대감 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이며, 연결성은 글로벌 한인 역량 강화 및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위한 것이다.

이상덕 청장 “여러분들이 차세대 리더가 될 것”

이상덕 청장은 제1차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가 유대인, 화교, 인도인만큼 네트워크를 못가졌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됐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고생하신 바탕위에 여러분은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한민족으로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때가 됐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한 취지도 이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 찍는 참가자들



개회사 하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이어 “지난 5월 동포청 주최로 세계한인차세대 대회가 열렸다”면서 “머지 않은 장래엔 바로 여러분들이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수 기간에 친구를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이다.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센터장도 “이번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저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동포 청소년, 한국 땅 밟고 ‘정체성의 뿌리’ 찾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차세대 청소년들이 6박 7일간 한국을 체험하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되짚는 여정에 나섰다. 연수는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의 주요 역사 유적지와 산업 현장을 잇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8일,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유니폼을 맞춰 입고 나란히 선 청소년들의 표정에는 경건함이 묻어났다. 대형 태극기 앞에서 이들은 조국의 독립과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청소년들도 깊은 감정에 잠겼다. 멕시코에서 온 남해린(18)양은 “수감자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가슴이 먹먹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발자취를 가슴에 새겼다.

정림사지 석탑과 공주 무령왕릉을 찾은 청소년들은 고대 백제의 아름다움과 정제된 문화유산에 감탄을 쏟아냈다.

공장·전시장 아닌, 감동의 교실 된 대한민국

연수단은 역사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원도 원주의 삼양라면 공장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봤다.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서는 백신을 연구하는 실험실과 수십 미터 높이의 바이오리액터를 지켜보며 “앞으로는 의사보다 바이오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나왔다.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는 전기차에 탑승해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는지 몰랐다.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강원도에서는 한지 테마파크를 찾아 전통 한지를 직접 떠보는 체험이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손바닥 크기의 전통 문양 한지를 챙기며 서로 자랑했고, 체험을 통해 종이 속에 담긴 역사와 혼을 느꼈다. 오죽헌과 설악산을 찾은 참가자들은 자연과 역사, 종교가 어우러진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에 매료됐다.

수도권 일정 중 인천 개항장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조선 말기 개항기의 흔적을 느끼며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되새겼다. 인천 해양박물관에서는 3D 시뮬레이터를 통해 한국 해양물류의 발전사를 체험했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첨단 연구시설은 참가자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안겼다.

정체성과 미래를 잇는 여정

연수 마지막 날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또래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활기찬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정말 친구가 생긴 것 같다”며 환호하는 장면은, 이 연수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연결의 시작’이었음을 상징한다.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단순한 견학 프로그램이 아니다. 각국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한인 청소년들의 마음에 ‘한민족의 뿌리’를 새기고, 정체성과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 여정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지 모국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미래를 만들 고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국 발전 앞장 학도병 출신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1988년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재일동포 기부금 525억원 모금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재외동포청은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이자 고국 공헌에 앞장선 박병헌(1928~2011년) 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단장을 선정했다.

경남 함양 출신인 박 전 단장은 1939년 12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뒤, 해방 후 청년 운동을 시작으로, 민단을 이끌며 재일동포 권익 신장과 모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다른 언어와 생활에 적응한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었다. 그

는 도쿄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전문 학교를 다녔다. 해방 직후, 재일동포 청년 단체였던 '조선건국 촉진청년동맹' 활동을 시작으로 민족운동의 길에 들어섰다. 이 선택은 곧 그를 재일동포 사회 리더의 자리로 이끄는 분수령이 됐다.

한국전쟁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결성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22살의 대학생이었다. 메이지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는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구국전선에 동참하기 위한 의용군 창설 추진위원이 되어 '재일학도의용군' 결성에 동참했고, 본인도 가까이 자원병에 지원했다. 그렇게 그는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 78명 가운데 한명으로 참전했다.

그가 처음 투입된 전투는 인천상륙작전. 미 제1해병단과 제7보병사단이 속한 제10군단에 배속됐다. 학도의용군이 끈질기게 전선 배치를 요구하자 미군은 부대 편제에 없는 '3·1독립보병부대'를 만들어 수용했지만 1950년 11월 중공군이 참전하자 연합군이 후방철수로 작전을 바꾸면서 해체됐다.

부대 해산은 곧 철수를 의미했지만 박 단장은 철수를 거부하고 당시 위관급 장교가 많이 부족했던 한국군 육군본부로부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라는 제안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투에 참여한다. 특히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전선을 안정시킨 계기가 된 용문산전투에서 소대장을 맡아 활약했다.

휴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재일동포의 조국 수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9년 인천 수봉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를 세웠고, 민단 단장이 된 후에는 참전 동지들과 함께 도쿄의 민단 중앙회관 앞에 기념비를 건립했다.

재일한국투자협회·신한은행 설립 주도

그는 민단의 총무국장, 부단장을 거쳐 단장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로 활약하며 민족 단합과 고국 발



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전신인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를 이끌었던 박병헌 전 민단 단장(사진 가운데).



1951년 한국전 참전 중 고향에서 어머니와 상봉한 박병헌 재일학도의용군.

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1970년 개최된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한국관 설치를 위해 조직된 '재일한국인만국박람회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한국관의 건립 예산을 웃도는 7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다.

모금 운동 외에도 모국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본국가족 초청사업'을 병행해 박람회 기간 중 6차례, 총 9천 710명의 인원을 초청하기도 했다. 본국에서 별도로 다녀간 가족까지 보태면 총 1만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모국의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국 가족 일본초청' 사업을 추가로 기획해 1만2천명이 엑스포를 관람하도록 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당시 한국관에는 총 62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외국 국가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의 흥행 기록을 썼다.

1985년 제38대 민단 단장에 당선된 그는 88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결성된 후원회 명예회장을 맡아 525억원을 모금해 모국에 전달했다. 이 금액은 체조·수영·테니스장 등 올림픽 경기장과 올림픽파크텔 건립 등에 쓰이며 올림픽 성공 개최를 견인했다.

1987년에는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 동포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를 제안하고 각국의 동포 지도자 303명을 도쿄로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현재 재외동포청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의 모태가 됐다.

박 전 단장은 일본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모국의 경제 발전, 지역 사회 환원 등에도 적극 나섰다.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이끌어...장학사업도

1973년 형제들과 구로공단에 전자부품회사 '대성전기'를 창업해 일본에서 습득한 선진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 산업화에 일조했고, '재일한국투자협회'와 '신한은행'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모국 투자 활성화와 금융 발전에 기여했다.

아울러 1987년 고향인 함양군에 기증한 뱃나무 1만 2천 그루가 백운산 자락(16km 구간)에 심어져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백운산 뱃꽃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밖에 '운암장학회'를 설립해 고향 청소년 39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초등학교 학습 기자재·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고향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75년 보국훈장 삼일장, 1979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9년 체육훈장 청룡장, 1994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이상덕 청장은 "민단의 정신적 지주였던 박병헌 단장은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권익을 지키며 모국 공헌에 평생을 바친 진정한 민족 지도자였다"며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모국 투자와 후원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그를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1926~2007)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1934~2021)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천택(1903~1985) 독립운동 지사를 선정했다. [▶](#)

OK-BIZ,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

재외동포청 · 부산시, 9일 부산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열어



변철환(왼쪽서 4번째) 재외동포청 차장과 김광희(왼쪽서 5번째) 부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포럼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 경제인 바이어 그룹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9일 부산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김광희 부산시 미래혁신 부시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변철환 동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재외동포청은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상 경제권'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과 수출상담회를 통해 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공동 대응과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바이어와 동포 경제인 자문단이 참여해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본격적인 판로 개척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희 부산시 부시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이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인하대 이진영 교수가 '글로벌 한상 경제권의 미래-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음 세대 플랫폼'을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K-푸드와 K-뷰티 등 부산의 특화 산업과 한상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긴요하다"며 "기술·창의성 중심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부산연구원 장정재 책임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권도겸 본부장, OK-BIZ 홍수연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이어 10일에는 본격적인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OK-BIZ 자문위원과 부산시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50여 명이 부산 롯데호텔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 138개사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포청은 지난해 8월 OK-BIZ 자문위원 180여명을 위촉한 데 이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부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을 협력 지자체로 선정했다.

동포청과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 한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동포 네트워크(OK-BIZ)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재외동포청 · 부산시, 부산서 수출상담회…138개 중소기업-해외 바이어 1대1 상담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인과 해외 바이어가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5 수출상담회'가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 경제진흥원과 해외 무역사무소가 주관했다. 특히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 소속 경제인 20명과 해외 바이어 30명이 초청돼 부산지역 유망 중소기업 138개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품목은 조선키자재, 기계 부품 등 산업재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까지 폭넓게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매칭을 넘어, 실질적인 계약성과 창출과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현장에는 실시간 통역과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참가 기업들의 상담을 도왔다. 50여개 테이블에서 국내 중소기업인과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칠레 자동차용품 회사 '피르 무쓰' 호세 미겔 룡게이라 대표는 "이번이 한국에서 두 번째 수출상담회"라며 "지난해 방문에서 우비(비웃) 제품에 대해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화장품 회사와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상담회에서는

부산 자동차용품 중소기업인 (주)LY(대표 윤태환)와 수출상담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고급 식품 매장을 운영하며 K-뷰티와 K-푸드 등의 유럽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OK-BIZ 홍수연 자문 위원은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한상은 오프라인 유통을 온라인 연결로 전환해, 현지 소비자와 K-브랜드를 이어주는 디지털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활동하는 동포 기업 37개사와 부산 기업 117개사가 연결돼 약 5천7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올해도 동포청은 미주(캐나다·페루), 유럽(프랑스·이탈리아·체코), 아시아(인도·필리핀),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아프리카·중동(남아공) 등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부산 상담회는 동포청이 추진 중인 '한상 경제권' 구상의 일환이다. 이 구상은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공식 발표됐으며,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기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

“소외된 사할린 동포,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민주당 의원실 · 동포단체 공동주관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할린 동포사회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 양문석 의원과 지구촌동포연대(KIN)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할린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새 정부의 동포 정책 방향과 국회의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되는 문제가 책임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 오랜 세월 감춰졌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게 하겠다”며 “사할린 동포들의 삶이 더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연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문석 의원도 “사할린 동포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문제, 일본의 유사 사례 분석, 관계 부처 및 동포

단체의 정책적 제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임 엘베라 사할린 국립대 인문대학장과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할린 동포사회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귀환 이후 세대에 대한 정체성 회복과 문화·언어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임 학장은 “사할린 동포 1세대가 사망한 경우, 2~3세대가 모국에 영주 귀국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한국에 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홋카이도대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는 사할린과 중국 지역에서 일본으로 영주 귀국한 사례를 분석한 뒤 “일본의 정책은 귀환자 정착 초기부터 행정적 일관성과 통합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법 실태조사 통해 사할린동포 정책 기반 정비”

이날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재외동포청이 2024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이 연구 책임자로 참가해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할린 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재외동포청 이기성(오른쪽 2번째) 재외동포정책국장이 동포청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동 주관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양문석 의원과 발표자, 토론회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윤 소장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재외 동포청이 2024년을 기점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강화를 위해 향후 1~3년간 실현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에 나섰다

이 방안은 현행 제도 및 조직 체계하에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정책 방향의 핵심은 법적 기반 정비와 실태조사,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산재된 관련 조사 및 행정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조직 기능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할린동포 관련 단체, 지역의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사할린동포와 현장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착지원 현실화...주거·의료·심리 통합지원 확대”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주거·의료·언어·문화 측면의 정착지원체계를 보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초기 정착지원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고령층을 위한 의료지원 확대와 심리·사회적 통합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언어 장벽 해소와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글 교실 운영, 통번역 서비스 확대, 러시아어 기반 안내서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도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사할린동포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역사기념관 및 문화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정보 접근성 역시 개선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할린동포 지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귀국 절차, 국적 취득, 행정지원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운영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포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할린동포 역사문화 기념공간 조성 검토”

윤 소장은 이날 8년 이후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정착지원은 주거와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 산하에 가칭 사할린동포지원재단과 사회통합교육원, 지역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착 단계별 역할을 분담하고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만큼, 사할린 동포에 대한 보다 큰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사할린 현지에 계시든 국내에 체류하시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영주귀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국내에서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1년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 1세대와 그 직계비속까지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가 정착지원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70명이 영주 귀국할 예정이다. **장**

“차세대 한민족 인재 키우는 데 혼신 다할 것”

세계 속 한상, 미래 한민족 키운다...글로벌한상드림의 새 비전



김점배 글로벌한상드림 이사장

사단법인 글로벌한상드림은 최근 제18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제3대 이사장에 김점배(68) 오만 알 카오스 트레이딩·(주)천관 회장을 선임했다. 글로벌한상드림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는 동포사회 리딩CEO들이 참여해 2016년에 설립했다. 한상의 전통과 비전을 유산으로 승화하고 모든 한민족이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전 세계에서 활약할 차세대 동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이중동한상총연합회장, 오만한인회장,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부의장, 제20차 세계한상대회회장, 한상 리딩CEO, 글로벌한상드림 부이사장 등을 역임한 아프리카 오만의 대표 한상이다. 그는 인도양을 무대로 원양어업과 수산물 가공·선박관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펼쳐며 한인 기업들의 현지 정착도 돕고 있다. 또 아프리카 오지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평화의 샘물’ 사업도 꾸준히 펼쳐며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점배 이사장을 서면으로 만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먼저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2대 정영수 이사장이 글로벌한상드림의 가치와 비전인 도전정신, 정도경영, 민족 사랑을 실현할 밑거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들과 힘을 모아 차세대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글로벌한상드림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소개해주세요.

글로벌한상드림은 해외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해 온 한상(韓商)이 국내외 차세대 한인 인재 육성을 위해 2016년 9월 29일에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국내외 소외계층과 차세대 한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법인은 모든 한민족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차세대 한민족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한상의 모국 공헌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 문화와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한상드림의 주요 사업은 뭔가요.

우리 법인의 핵심 사업은 장학사업으로, 전 세계 한민족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국적과 무관하게 최대 10년간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서포터즈’, 재외동포 고등학생(연 150만원)·대학생(연 200만원)을 위한 ‘한상드림장학금’이 대표 사업입니다. 성적·전문성·사회배려자를 우대하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역 학생 대상 ‘한상대회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 ‘글로벌한상스쿨’, 국내외 취업 지원 교육사업 ‘꿈을 잇다’도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장학사업 성과를 알려주세요

대표 지원 사업인 ‘드림서포터즈’부터 보자면 법인 설립 다음

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총 48명의 청년들에게 2억3천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도부터 시행한 '한상드림장학금'은 현재까지 총 43명에게 총 7천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한상장학금'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7개 지역 134명에게 1억4천500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외에 '꿈을 잇다' 사업으로 32명의 미취업 청년들이 국내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공한 한상들이 차세대 육성, 특히 장학 사업을 펼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글로벌한상드림은 그 설립배경에도 나와 있듯 한상 상도(商道) 10개항 중 '재물 축적은 정도로 하고, 축적한 재산은 민족에게 남긴다.'는 약속의 실천을 위해 한상이 직접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상들은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세계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사업, 차세대 한상 지원사업, 국내외 한상 교류활동사업 등을 통해 국내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미래의 한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한상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재외동포의 위상 제고가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3대 이사장으로서의 포부와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 우리가 목표한 기금액은 100억원입니다. 지난 9년간 약 20억원 가까이 기금을 적립했는데 지난번 애크랜타에서 개최된 리딩CEO포럼 회의에서 회원가입비 조정 등을 통해 외연을 확장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관개정 등 현재 기부금 적립에 좀 더 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글로벌한상드림이 전 세계 한인 청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중심 조직이 되어 한상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아중동한상총연합회, 아중동한인총연합회 등을 이끌었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도 역임하셨는데, 성공한 한상으로서 봉사활동에도 전념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상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부터 세계 각



지난해 10월 2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막식에서 김점배(왼쪽서 3번째) 이사장이 당시 글로벌한상드림 부이사장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에서 역경을 이겨낸 한민족 경제인입니다.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상의 역사와 전통, 비전을 한민족의 유산으로 승화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글로벌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차세대들의 교육에 앞장서온 것이 한상들입니다. 이제는 모국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우리 한민족 차세대 인재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원하고 세계인과 발맞춰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국과 동포사회가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해 정부(정치)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재외동포청 출범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동포들과의 소통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 200만 명이 넘는 재외 유권자 중 10%만 투표에 참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 100만 명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역 동포들은 영주권 제도 부재와 더불어 귀국 투자 시 세제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의 NRI (Non-Residence Indian) 제도처럼 해외 자산의 원활한 국내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창**

“차세대 육성 적기…제2, 제3의 앤디 김 계속 나올 것”

“재외동포청, 전 세계 한인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야” 주문도

“이제는 한인 2세대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1세대들의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차세대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럴 때 제2, 제3의 앤디 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재미동포 1세대 중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재선 시장을 지낸 강석희 고려대 국제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의 역할 확대와 새 정부의 한미관계 전략, 그리고 재외국민의 권익 증진에 대한 진지한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 한국인의 오랜 염원을 모아 탄생한 조직인 만큼,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전 세계 한인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헌신적인 한인 리더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입니다. 예컨대, 주류사회와 연결된 인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도 확고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 75년간 피를 나눈 동맹”이라며 “정권 교체로 인해 대미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의 정책적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미관계는 외교, 경제, 안보 전반에 걸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20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



최근 캐나다 밴쿠버 여행 중 스탠리 파크에서 찍은 가족 사진.

사회에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식은 아직 갈 길 남아”

강 이사장은 미국 내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도 짚었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투표소까지 수백 km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현행 제도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러한 투표제도 개선이 단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재외동포들의 국가 정체성과 소속감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어바인 시장 재임 시절, 강 이사장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강석희 고려대 국제재단 이사장이 최근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 중, 미국 정치 시스템과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은 자신을 내려놓고 시민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강점으로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꼽았다. “시민이 시의회에서 3분간 자유롭게 발언하고, 시장과 의원들은 반드시 이를 경청해야 하는 문화가 제도화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시민의 참여를 일상화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쌓는 토대입니다.”

“정치는 싸움 아니라 섬김...포용의 리더십 필요”

강 이사장은 이민자로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해온 인물이다.

“48년 전,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단한 삶이었지만, 오늘날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민 의식, 정치 문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

각합니다.”

그는 경제적 하드웨어와 시민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이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과제라며 정치인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그는 한인 2세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미국 사회 속에서 자신감 있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일군 기반 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강 이사장은 올해부터 고려대 국제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 양성과 교류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주 한인사회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미동포 1세대 중 최초의 직선 미국 시장을 지낸 강석희 이사장은 1977년 고려대를 졸업한 직후 먼저 미국에 가 있던 형님을 따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다. 미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전자제품 판매업소 ‘서킷 시티’의 판매원으로 취업한 그는 특유의 공손함과 성실성으로 입사 4개월 만에 판매왕 자리에 올랐고 아시아계 최초로 매니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에서 평범한 이민자로 살던 그가 한인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결심한 건 1992년 LA 흑인 폭동을 겪으면서다. 당시 한국인 상점들이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은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그는 1993년 한인장학재단 이사로서 한인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한미연합회, 이주한인장학재단 활동 등을 통해 한인들의 미국 주류 사회 진입을 도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한인 사회로부터 어바인 시의원 선거 입후보 제의를 받았다. 고심 끝에 도전을 결심한 그는 선거기간에 매일 5~6시간씩 지역을 순회하며 2만여 가구를 직접 방문했고 그의 열정과 진정성을 인정한 백인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됐다.

시 의원으로서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 신임을 얻은 그는 2008년 어바인 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0년 어바인 시장 선거사상 최고의 득표율(64.1%)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장**

입양인 치유의 공간, 파주 ‘엄마품동산’ 8년 만에 개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축사...“입양동포, 소중한 인적자산”



14일 경기 파주 엄마품동산 개장 기념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기억과 치유의 공간'인 엄마품동산이 14일 경기 파주에서 8년여의 준비 끝에 공식 개장했다. 이곳은 모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입양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자 '따뜻한 품'이다.

엄마품동산은 미군 기지였던 캠프하우스 부지(61만㎡)의 일부인 2천224㎡ 규모로 조성된 상징 공간이다. 입양인 단체 '미앤코리아' (대표 김민영)와 파주시가 손잡고 2017년부터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사를 2023년 재개하며 지난해 11월 벽화 제작식을 통해 완공을 예고한 바 있다.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개장식에는

해외입양인 200여명과 파주시민 100여명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입양인 여러분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 입양동포 전담 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11월에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개최해 입양인과 모국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계 첫 미국 육군 장성 출신인 스티븐 커대(한국명 최갑산) 미국 국립 루이스대 교수가 입양인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입양인의 친어머니, 위탁모, 양어머니가 한 연단에 선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지난 1975년 아이와 헤어진 친어머니가 딸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야 했던 지난 삶을 얘기할 때는 상당수 입양인이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며 감동의 눈물을 쏟기도 했다.

또 지난 19년 동안 61명의 아이를 돌본 위탁모와 한국에서 입양한 딸과 손주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양어머니도 무대에 올라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선 입양 당시 모습이 담긴 900명의 사진과 이름, 사연 등이 기록된 전시도 '평화뮤지엄'에서 펼쳐졌다. 또 동산 가장자리에는 입양인 700여명의 이름표가 걸린 '기억의 벽'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축제는 민속놀이와 다큐 상영, 음악공연으로 이어졌다. 입양인과 파주 시민이 함께 웃놀이하며 어울렸고, 파주시민회관에서는 입양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이름에게'가 상영됐다.

행사 공동추진위원장인 김민영 미앤코리아 대표는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수천 명의 입양인들에게 기억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양을 보낸 엄마의 아픔과,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입양인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

“군인 아닌 아버지로서 가족과 첫 모국 방문 기뻐요”

한국계 첫 미 육군 장성 출신 스티븐 커다 미국 루이스대 교수

미국 입양인으로서 한국계 최초로 미 육군 장성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 스티븐 커다(65·한국명 최갑산) 미국 국립 루이스대 교육공학 교수. 그는 지난 14일 해외 입양인을 위한 ‘기억과 치유의 공간’인 경기 파주 ‘엄마 품 동산’ 개장 기념행사에 입양인 대표 자격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1960년 전북 이리(현 익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그는 10세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아칸소대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주한 미군 제2사단에서 소대장, 중대장, 작전장교로 근무했다.

이후 제350 민사사령부 참모, 합동특수전대학(JSOU) 교수 등으로 활동했고, 2012년 준장으로 진급해 선전, 의무·시설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351 민사사령부 사령관으로 3년간 재직했다. 2015년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일본과 괌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민사 업무를 비롯해 수송·훈련 등을 총괄 지원하는 제9 임무지원사령부(MSG)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미국에서도 군인이 장군 계급에 오르는 것은 0.06%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입양인 출신인 그의 성취는 더욱 특별하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실제 주인공 유진 초이와 유사한 삶을 살아 온 그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도 참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지원을 담당한 제9 임무지원사령부 사령관 시절과 이라크 및 아프간 참전 경험이 군 복무 중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웠던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커다 교수는 군 복무 중에도 대학원을 다니며 교육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퇴역 후에는 미국 일리노이주 보훈처장에 임명됐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부인 레슬리 커다 씨도 샌디에이고대 교수이며, 두



한국계 최초로 미 육군 장성 지낸 스티븐 커다 교수

사람 사이에는 1남 4녀의 자녀가 있다. 그는 “이번 방문은 군인이 아닌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뿌리를 찾은 여행”이라며 “자녀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입양인 후배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는 노력입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몸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점’을 첫손에 꼽았다. “1960~70년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민족처럼, 저 역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것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보려 했습니다.”

커다 교수는 또 하나의 성공 비결로 ‘가족의 힘’을 꼽았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들이 늘 저를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제 성공은 노력과 운, 그리고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재외동포청, 첫 홍보대사에 ‘큰별쌤’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 위촉 최태성 “우리 국민과 동포 사이의 벽 극복 위해 열심히 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큰별쌤’이라 불리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촉식은 이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사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개청한 이래 처음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했다.

동포청은 그가 EBS ‘최태성의 한국사’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사 강의에서 재외동포 이민사와 그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재외동포 인식 제고에 앞장섰기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10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열린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 홍보대사 위촉식. 이상덕(왼쪽) 동포청장과 최태성 홍보대사.

최태성 홍보대사는 위촉식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지 재외동포였음을 알고 놀랐다”고 소개한 뒤 “그때부터 재외동포의 모국을 향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덕 청장은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우리 청의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을 해줘서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홍보대사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홍보 활동과 행사에 참여해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재외동포 정책의 인지도 제고 및 공감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확대한다 초중고·대학 35개교서 강의…공무원·일반인 대상 교육도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공무원과 일반인까지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 밀집 거주 지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동포청은 하반기 교육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7월 말에 실시한다.

동포청은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학생 수와 지역에 제한 없이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 200명이 넘는 학교부터 전교생 14명에 불과한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 등에서도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이해교육은 오는 7월까지 총 35개 학교를 대상으



지난 5월 22일 한양대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사로 나선 이기성 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로 진행한다.

이상덕 청장은 “학생들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이 재외동포를 더욱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기회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의 취업 지원책 찾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취업 지원체계 구축 MOU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동포청은 5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동포가 한국 입국 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거나 체류 기간 중에 장애를 얻게 되더라도 직업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동포 장애인 전용 직업상담 창구를 연결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의 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양 기관이 보유한 시스템 연계 ▲국내 체류 동포



이상덕(앞줄 왼쪽) 재외동포청장이 이종성(앞줄 오른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MOU를 체결한 후 두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을 포함한 관련 통계의 공유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의 장애인 동포들을 고용하도록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역량을 심층 활용해 동포 장애인 중 한 분이라도 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분들의 취업 현실에 더욱 귀 기울여 취업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세심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고려인 동포들과 지역사회 ‘잇는’ 배식 봉사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회원, 독거노인 등 500여명 대상 배식 봉사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뿌리를 지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며, 재외동포청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단체인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의 채예진 이사장과 회원들은 5월 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음식 배식 및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채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이 땅의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GN은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해 고려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연 6회 각 6주간 ‘미래이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고려인 동포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왼쪽서 7번째) 재외동포정책국장과 KGN 채예진(왼쪽서 6번째) 이사장이 회원들과 배식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도 직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기성 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동포들을 알리고 그들과 지역사회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MOU)식
- 9일: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부산 롯데호텔)
- 10일: 재외동포청 홍보대사 최태성 역사커뮤니케이터 위촉식
세계한인비즈니스 수출상담회(부산 롯데호텔)
- 17일: 2025년 제1차 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 개최식

재외동포청 공지

'2025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30일까지 코리안넷 접수

재외동포청, 27번째 한글문학 창작 마당 열어...총상금 2천950만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25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

올해 27번째 마련되는 문학상 공모는 4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는 시, 단편소설, 수필 등 3개 부문으로, 자유 주제 또는 정체성, 이민 체험, 한글학교 활동 등을 담은 창작물이다.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했거나 해외에서 7년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민권, 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가 해당한다. 대상 500만원, 우수상 250만원, 가작 100만원 등 총 13명의 수상자에게는 모두 2,9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 기간 및 방법, 재외동포청 유튜브(youtube.com/@OKAKOREA)를 통한 사전 설명회, 심사 및 발표 등 자세한 문의를 재외동포청 홈페이지(https://www.oka.go.kr)와 코리안넷, 공식 페이지(https://m.site.naver.com/11SKG)를 참조하거나 이메일(pms01@okocc.or.kr) 또는 전화(+82-2-3415-0144)로 하면 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문학상'은 한글 문학 창작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국민 간 문화적 소통을 촉진해온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고국에 초청해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2025. 6. 4.(수) ~ 6.30.(월) 23:59 (한국시간 기준)

공모 자격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 단, 청소년(만 7세 이상~19세 미만)은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한 재외동포

공모 부문

부문	총정점수	1등당 최고 점량
시	3~5편	제한 없음
단편소설	1~3편	16,000자 내외 / 15쪽 내외
수필	1~3편	5,000~10,000자 내외 / 5~10쪽 내외

문의

- 재외동포문학상 운영사무국
- 이메일: overseaskk2025@gmail.com
- 전화번호: +82-10-4302-1610
- 카카오톡 채널: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 공식 페이지 주소: https://m.site.naver.com/11SKG

시상 내역

대상	시	단편소설	수필	수상자별 상금
대상	1명	1명	1명	500만원
우수상	1명	1명	1명	250만원
가작	2명	2명	3명	100만원

시상식·초청 행사

- 지원 내역: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참가비 일체
- 항공은 왕복, 일반석으로 재외동포청 지원기준 상한액 내에서 지원
- 일정, 장소, 항공료 상한액은 추후 수상자 개별 통보

접수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 6. 4.(수)~6. 30.(월) 23:59(한국시간 기준)
- 방법: 코리안넷(korean.net) 온라인 접수

- 코리안넷 (korean.net) 공지사항 접속
- 하단의 '언어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영모 작품 첨부
- 저장 (제출가능한 수정 가능)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확인 → 신청 완료 (최종 제출 후 수정 불가)

사전 설명회

- 일시: 2025. 6. 13.(금) 10:00~11:00 (한국시간 기준)
- 주소: 재외동포청 유튜브 (youtube.com/@OKAKOREA)

발표

- 수상자 발표: 2025년 9월 중 / 재외동포청(oka.go.kr) · 코리안넷(korean.net) · 소통24(sotong.go.kr) 홈페이지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포스터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공신력 있는 소비자정보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소비자24

공정거래위원회

다 있다!
소비자정보

더 알차다!
비교공감

소비자24

안심된다!
리콜정보

걱정없다!
피해구제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2주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